

경험생명표를 아시나요?



김태형의 보험이야기

- 롯데홈쇼핑 금융사업부 MD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SERI부자연구회 재테크 교수위원
- 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강사
- 저서 <지금 당장 재무설계 공부하라> (재테크 절대로 하지 마라)
- 트위터: twitter.com/samariain



보험계는 요즘 경험생명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6회 경험생명표가 머지않아 제7회 경험생명표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경험생명표란 도대체 무엇이고 보험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일까?

경험생명표란 보험가입자들의 사망률과 생존율 등을 집계한 것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자료를 가리킨다. 보험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따지는 확률의 법칙에 근거해 성립하는 만큼 확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생명표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경험생명표에 따라 각종 보험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고 연금보험의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가장 먼저 보험료가 달라진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급격히 증가해 왔다.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생존율 상승과 사망률 하락 추세는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사망률이 감소하면 종신보험 같은 사망보험은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반대로 연금보험은 생존율이 높아 지므로 보험료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최근에는 특히 고령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는 만큼 연금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추후에 받는 보험금이 동일하다면 위험률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료가 변경되는 보장성보험과 달리 보험료는 동일하고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연금보험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경험생명표가 새로 채택될 때마다 평균수명이 평균 3세가량 늘어났고 연금보험의 수령액은 이에 따라 평균 10% 정도 감소해 왔다. 예컨대 30세에 가입해 60세까지 30년간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한 연금보험의 연수령액이 5%라고 가정하고 제3회 경험생명표와 제6회 경험생명표에 각각 대입해 보면 예상 연금수령액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평균수명이 더 높은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연금보험이 그만큼 불리해지는 것이다.

지난 2002년의 제4회 경험생명표 시행 이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제6회 생명경험표가 채택된 2009년 이후에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에 비해 연금을 두 배 가까이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 종신연금 보기

경험생명표	3회	4회	5회	6회
평균수명(세)	68.4	72.8	76.4	78.5
연금수령액(만원)	11,291	8,174	6,893	6,386

30세, 월 100만 원, 30년납, 60세 연금 개시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가장 먼저 보험료가 달라진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급격히 증가해 왔다.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사진_하사헌 기자

언제부터 바뀌나?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매년 3월에 회계를 마감하고 새로운 회계연도를 4월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지난 1년간의 수입보험료와 지출보험금을 토대로 각 담보별 손해율을 산출한 뒤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담보들은 보험료를 올리거나 낮춰 4월부터 시행하는 게 보통이다. 새로운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도 대부분 이 시기에 이뤄진다.

보험개발원은 최고 보장연령을 현행 110세에서 110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경험생명표를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아직 보험사별로 새 경험생명표 적용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으나 제7회 경험생명표 역시 관행대로 보험상품 구성 내용이 가장 많이 바뀌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의 내용이 일부 바뀌거나 판매가 종료되고 신상품이 등장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더욱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이 새 경험생명표 채택과 함께 예정이율을 0.25%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변수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그

만큼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사실 3월은 보험가입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기준월인 만큼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꽤 의미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하면 하루 차이로 보험료나 보험금 등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은 대개 몇 년에서 몇 십 년짜리이므로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특히 올해처럼 굵직굵직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에는 더욱 신중하게 고려한 뒤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m**

경험생명표란?

보험가입자들의 연령, 성별, 가입시기, 보험계약 유지 기간 등을 토대로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 등을 정리한 표를 말한다. 생명보험사의 모든 보험상품은 이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예정위험률을 산출하므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경험생명표는 3년마다 변경되고 있으며 2009년 제6회 경험생명표 채택에 이어 금년에 제7회 경험생명표로 변경될 예정이다.